

스트로브 잣나무 묘목의 시업방법

한국양묘협회 충청남도지부 김 해 연

1. 발아촉진 방법

발아촉진 방법은 여러가지 있으나 본인은 수화 발아 촉진을 하였습니다.

현가마니에 종자를 담고 가마니 입구를 단단히 꿰매고 수도물을 1일 1회 충분히 급수하면 종자가 항상 수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일기 변화로 종자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 종자 자체에 부착된 송진이 제거되고 기온이 상승한 시일을 이용하여 밤에는 현가마니를 덮어서 보온하고 낮에는 양지바른 곳에 종자 가마니를 얹었다 채웠다하여 1일 2~3회 반복하면 속히 발아 촉진이 됩니다. 본 종자는 가급적 파종 전년도 동절에 발아 촉진을 하여야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2. 파종량

책자에 의하면 m^2 당 30g을 파종토록 되어 있으나 실지 파종하여 본즉 7~9g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밀파하면 삼복더위에 균발생이 극심하여 고사율이 많습니다.

3. 줄파종에 필요성

묘근의 타수중에 비하여 특히 길고 단단하며 굵어서 묘목의 굴취선묘 분리작업 과정에서 적당한 부위에서 묘근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착된 뿌리 전부가 일단 고무줄과 같이 늘어져 뿌리의 100% 손상을 입게 되는 동시 이식시에는 활착율이 30~60%정도이고 활착된 이식묘도 생

육이 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위와 같은 실정에 비추어 활착율을 높이는 방법은 7월~9월 2회에 걸쳐 단근작업이 필요합니다.

4. 단근 방법

줄파종 공간에 삽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곳질어 길게 엉켜있는 묘근을 단절 분리시켜 작업을 꼭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시기에 이식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역시 1-0이식도 줄파종을 해서 단근하여 이식하는 것이 활착이 잘 될것으로 봅니다.

묘목의 성질로 볼때 필히 산출할 묘목도 전기와 같은 방법으로 단근 출하해야 식재후 활착율이 달성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타수중에 비하여 시업방법이 가중되어 경비가 많이듭니다.

5. 본 수종은 초복서부터 말복사이에 살균소독을 수차 시행하여야 합니다. 저습하면 곰팡이 병이 발생하고 거미줄이 생기기 시작하면 고사율이 극심합니다. 살충제 약은 3월15일, 5월15일, 6월말일·8월중순경 파라치온과 접촉제를 혼용 살포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6. 본인이 시업상 체험한 경험에 의하면 타수중에 비하여 작업과정이 복잡하여 노력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